

대웅제약, 美서 두번째 IR 개최

나보타 앞세워 기업가치 올린다

(기업설명회)

美 출시로 해외투자자 관심 ↑

안구건조증 치료제 임상도 설명

대웅제약이 지난해에 이어 미국에서 두번째 기업설명회(IR)를 열고 해외 투자자 모시기에 나섰다. 자체 개발한 보툴리눔 독신 제제 '나보타'의 미국 출시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았다는 후문이다.

17일 대웅제약에 따르면 회사는 자회사인 한올바이오파마와 공동으로 지난 10일 미국 뉴욕과 보스턴 등에서 해외 기관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논널로드쇼(Non-Deal Roadshow·NDR)를 가졌다. NDR은 보통 기업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열리지만, 거래를 수반하지 않는 형태의 기업설명회를 뜻한다.

회사측에 따르면 해외 투자자들은 대웅제약이 앞으로 미국시장에서 어떤 전략으로 시장점유율을 끌어올릴 것인지를 궁금해했고, 향후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의 잠재적인 가치를 파악하는데 집중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미국에 이미 진출한 나보타 치료적응증 확대 계획에 대한 질문이 많았다"며 "또 현재 한올바이오파마와 공동개발 중인 안구건조증 치료제 HL036의 임상 현황에 대한



관심도 높았다"고 설명했다. 대웅제약이 개발 중인 안구건조증 치료제는 지난 3월 부터 미국에서 임상 3상이 진행 중이다.

대웅제약이 이제까지 미국에서 NDR를 가진 것은 이번이 두번째다. 지난해 10월 창립 이후 처음으로 미국 뉴욕과 보스턴에서 기업설명회를 가졌다. 지난해 7월과 올해 2월에는 홍콩, 싱가포르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NDR를 열었다. 대웅제약이 지난해부터 해외 투자자들에게 기업을 적극 알리기 시작한 중심에는 '나보타'가 있다.

대웅제약은 지난 달 나보타의 미국 제품인 '주보'를 미국 시장에서 공식 출시했다. 주보는 지난 2월 국산 보툴리눔 독신 제품 가운데 처음으로 미국 식품의약품(FDA)의 품목허가 승인을 획득한 바 있다. FDA는 주보의 미간주름 적응증에 대해 판매허가를 승인했다.

주보의 미국 현지 파트너사인 에블루스는 현재 미국 현지 의료진을 대상

으로 제품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체험 'the Jeuveau Experience Treatment(J.E.T.)'을 대대적으로 진행하며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대웅제약은 미국 시장에 이어 세계 제2의 보툴리눔 독신 시장인 유럽 진출도 앞뒀다. 지난 4월 유럽의약품청(EMA) 산하 약물사용자문위원회(CHMP)는 누시바(NuceivaTM)의 유럽 판매허가에 대해 '허가승인 권고'를 내린 바 있어, 국산 보툴리눔 독신 제제 최초로 미국과 유럽에 동시에 진출하는 제품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해외 IR 활동을 늦게 시작해 인지도가 낮은 것을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 매년 3~4회 NDR을 계획 중이다"라며 "한올바이오파마와 공동으로 NDR을 진행해 개발중이 혁신신약은 물론 대웅그룹 전체를 알리는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elle@metroseoul.co.kr

제약바이오 '오픈이노베이션'은 여기서!

제약바이오협회

100여명 수용가능한 회의실 구축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보건의료계의 오픈 이노베이션(개방형혁신) 활성화를 위해 소통 공간을 마련했다.

제약바이오협회는 서울 방배동 제약회관 건물 2층 '오픈 이노베이션 플라자'에 10~100여 명 수용 가능한 회의실을 구축하고, 4층 강당 로비를 대폭 확충하는 등 새 단장을 마쳤다고 17일 밝혔다.

세미나, 워크숍, 토론회, 학회 등을 진행할 수 있는 다양한 크기의 회의실을 마련해 보건의료산업의 유기적인 협력과 소통을 지원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지하 주차장도 방문객을 위한 리노베이션을 통해 넓은 공간을 확보했다.

지난 2017년 6월 처음 문을 연 오픈 이노베이션 플라자는 제약기업은 물론 학계, 언론계, 정부기관 등이 각종 회의와 교육, 세미나를 진행하는 '개방형 혁신의 허브'로 폭넓게 활용하고 있다.

협회 건물 2층에는 총 여섯 개의 회의실이 들어섰다. 협회의 영문 명칭 KPBMA에서 이름을 딴 회의실 중 가장 넓은 K룸은 최대 90석 수용이 가능하고, P룸 36석, B룸 12석, M룸 24석, A룸 36석 등의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 이와 별개로 최근에는 글로벌 진출이라는 의미를 담아 20석 규모의 G룸도



서울 방배동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강당 전경

만들었다. 2층만 모두 약 220석 규모다. 이들 회의공간은 음향기기와 스크린, 첨단 냉난방 시스템 등을 구축해 다양한 모임과 행사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다.

특히 4층은 180석 수용 규모를 자랑하는 강당 외에 다른 회의실을 없애고, 60평 규모의 넓은 로비 공간을 조성했다. 학회 등 행사를 진행할 때 부스를 설치하거나 주회 측에서 원활하게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확장한 것이다. 회원사의 경우 70% 할인된 가격으로 시설을 이용 가능하고, 유관 기관·단체·학회 등도 50% 수준의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다.

협회 관계자는 "제약바이오기업 뿐만 아니라 의료계, 정부기관, 대학, 언론 등에서도 좋은 조건에 쾌적한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며 "다양한 소통과 교류를 통해 산업 발전에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세경 기자

보건산업, 수출 146억불 ↑·고용 4만명 ↑

복지부, 2018년 보건산업 성과 발표
최근 5년간 연평균 21% '고속성장'

지난해 제약, 의료기기, 화장품 등 국내 보건산업 수출액은 146억 달러로 전년 대비 19.4% 늘어나는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연평균 21%의 고속 성장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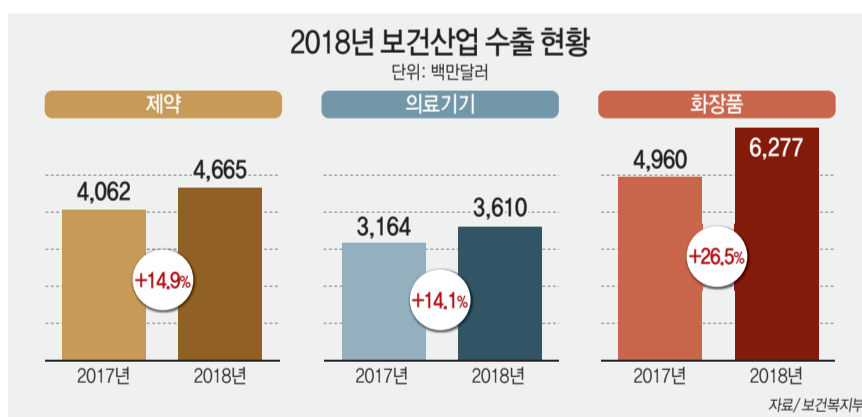
보건복지부가 17일 발표한 '2018년 보건산업 수출·일자리 및 경영 성과' 발표에 따르면 2018년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 보건산업 수출액은 146억 달러로 2017년보다 19.4% 늘어났다.

무역수지는 26억 달러 흑자로 2016년 흑자 전환 이후 3년째 매년 흑자 폭을 늘리는 추세다. 보건산업 수입액은 120억 달러로 2017년 106억 달러에서 13.2%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의약품 수출액은 전년 대비 14.9% 증가한 47억 달러로,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기록했다.

의약품 수출은 최근 5년간(2014~2018년) 연평균 성장률 18%로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지난해 의약품 무역수지는 18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지만, 최근 5년간 수출 증가율(18.0%)이 수입 증가율(6.2%)보다 높아 무역수지 적자폭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 국가별로는, 미국이 의약품 수



출 5억 달러로 최초로 우리나라 의약품 수출국 1위에 올랐으며, 독일(4.6억 달러), 일본(4.6억 달러), 중국(4.0억 달러), 터키(3.9억 달러) 순으로 이어졌다.

특히 주요 완제의약품의 수출 품목 중에선 바이오의약품이 총 18억 달러를 수출해 전년 대비 32.7% 급증했다. 바이오의약품이 전체 의약품 수출에 차지하는 비중은 38.7%다. 이어 항생물질 제제, 백신, 보톡스 순으로 의약품 수출 품목 상위에 올랐다.

의료기기 수출액은 전년보다 14.1% 증가한 36억 달러, 수입액은 11.3% 증가한 39억 달러를 기록했다. 의료기기는 범용초음파영상진단장치, 치과용 임플란트, 성형용 필러, 매일착용소프트콘택트렌즈 순으로 수출액이 많았다.

지난해 화장품 수출액은 전년 대비 26.5% 증가한 62억8000만 달러, 수입

액은 5.4% 증가한 16억4000만 달러로 46억4000만 달러 흑자를 냈다. 화장품 무역수지는 5년 연속 흑자다. 화장품 수출은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34.9%에 달한다.

의료서비스를 포함한 보건산업 전체 종사자 수는 지난해 말 기준 87만명으로 2017년 말보다 4.9%(4만1000명) 늘어났다.

경영지표도 긍정적이었다. 보건산업 상장기업 217개의 전체 매출액은 36조6000억원으로 2017년 대비 7.8%(2조6000억원) 증가했다.

또 제조업 매출액 상위 100대 기업에는 제약기업 4개사와 화장품 기업 3개사가 포함됐다.

LG생활건강(25위), 아모레퍼시픽(30위), 유한양행(67위), 녹십자(83위), 종근당(94위), 대웅제약(96위), 한국콜마(100위) 등 총 7개사다.

/이세경 기자

발달장애인 전문 치료 기회 확대 복지부, 거점병원 4곳 추가 지정

인하대병원 등 행동발달증진센터로

발달장애인의 전문적 치료 기회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발달장애인의 행동문제에 대한 전문적 치료를 위해 인하대학교병원, 강원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을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로 추가 지정한다고 17일 밝혔다.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2016년 한양대병원과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이 처음 지정되어 현재 운영 중이다.

거점병원에서는 진료 조정자(코디네이터)가 발달장애인이 병원을 이용하기 쉽도록 안내하는 것은 물론, 정신건강의학과, 재활의학과, 치과 등 필요한 진료부서 간 협진을 돕는다.

행동발달증진센터는 자해·공격 등 행동문제를 보이는 발달장애인에 대하여 행동치료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응용행동분석(ABA) 등 근거에 기반한 치료를 제공한다.

이대서울병원

25일 대장암 건강강좌

이대서울병원 암센터는 오는 25일 오후 3시 대장암 건강강좌를 개최한다. 대장암 명의인 김광호 센터장(사진)이 '대장암, 완치될 수 있나?'라는

복지부는 발달장애인 의료이용 현황과 발달장애 관련 전문인력 현황, 유관 진료과목 간 협진계획의 체계성 및 중증 행동문제 개입에 대한 치료계획의 구체성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해 병원 4곳을 추가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새로 지정된 4개 병원은 행동치료 전문가 등 인력을 확보하고, 치료실·관찰실 등 행동발달증진센터 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구비하여 올해 하반기에 개소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서비스 확대를 위해 오는 6월 말에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을 재고해 2개소를 추가적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박승후 장관은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를 통하여 발달장애인의 건강 관리가 쉽고 원활해지고, 행동문제를 치료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발달장애인이 도움이 필요한 대상으로만 머무르지 않고, 지역사회에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도록 복지과 의료 등 다양한 방면에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주제로 진행하는 이번 건강강좌는 관심있는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참석자들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세경 기자